

SOCIETY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장애인 편하게 이용할 활동 공간 많았으면”

광주 광산구 맨발길 일제정비
이물질 제거·흙 보충 등 진행

광주 광산구는 ‘내 집 앞 맨발길’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는 면적이 넓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민 누구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집 앞 맨발길’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공원, 녹지, 등산로를 중심으로 흙, 땅의 감촉을 직접 느끼며 걸을 수 있는 맨발길 36개소를 조성했으며, 최근 시민의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맨발길 전체를 점검·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편사항, 개선 건의 등을 수렴해 맨발길 주변 이물질 제거, 노면 고르기, 흙 보충, 세척장 퇴적물 청소 등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산구는 맨발길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관리 지침과 계획안도 마련했다. 시민의 자발적인 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맨발길에 빗자루를 비치하고, 이용률이 높은 곳은 흙 보관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맨발길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며 “길을 이용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비 사업에 반영하고, 시민의 관리 참여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지체장애인 신대현씨 전동휠체어 도로 이동 불편 호소
화장실·주차장 시설 개선...비장애인 인식 전환 요구도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18일 광주 북구 윤림동 광주시장 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지체장애인 신대현씨(66)는 집에서 복지관으로 이동할 때 많은 불편이 따른다고 하소연했다.

2010년부터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신대현씨의 외출은 비장애인보다 수십 배는 어렵다. 북구 매곡동 집에서 종합복지관으로 가는 편도 3.7km 구간의 길이 무척 험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동 휠체어 바이크를 구매해 20~30분 동안 인도, 도로를 다니지만 일반인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다.

신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경사진 인도와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등이다.

전동 휠체어 바이크가 장착돼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경사진 인도에서 자칫 뒤집힐 우려가 있다.

때문에 신씨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가거나 평평한 인도를 찾아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비가 내린 날이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신대현씨.

면 신경을 세우며 고랑이 깊게 파인 보도블록, 물웅덩이가 없는지 살펴본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인도를 막아 가던 길을 되돌아 도로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다니면서 차량 경적에 놀라 멈추는 경우도 허다해 휠체어 앞뒤에 빨간 센서를 붙이기도 했다.

신씨는 “전봇대, 가로수 뿌리, 전동력보드 등 거리 여건상 인도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다”며 “어쩔 수 없이 도로로 갈 수 밖에 없어 도로 끝으로 다니지만 차량 경적에 자주 깜짝 놀란다”고 언급했다.

신씨는 공공기관, 커피숍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장애인 화장실의 여부를 확인한다. 한 공공기관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 한 칸에 청소 도구가 놓여 있어 큰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다.

신씨는 “장애인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가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할뿐더러 휠체어 활동 환경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며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구조인 곳도 많다”고 토로했다.

도심 저상버스의 불편함도 꼬집었다. 신씨는 “저상버스를 확충했다고는 하

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지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최근 기역을 돌이켜보면 버스정류장의 인도 가까이에 저상버스를 붙인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시설 확충을 거듭 당부했다.

신씨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체력단련실, 당구장 장비, 엘리베이터 등이 부족해 한번 이용하려면 많은 대기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주차장도 장애인 전용 주차자격을 확충해야 한다”며 “장애인을 보면 그저 불쌍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장애인처럼 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북구, 청년 280명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광주 북구는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며, 오픈스프리트웨어 구입 또는 구독 비용을 연 1회에 한해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북구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280명의 청년에게 선착순 지급한다.

북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2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원 대상 소프트웨어를 선정했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챗GPT PLUS, 한컴오피스(한컴독스 포함), MS오피스, 어도비, 망고보드, 미리캔버스 등 6종이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일 또는 구독 종료 기간이 2025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가 기업, 교육기관 또는 비즈니스용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지난 19일 광주 남구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2025년 4·19 추모기념행사'에 참석한 전민수 광주연합회장과 김용호 4·19정신계승연맹 이사장 및 광주·전남·전북 연합회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민주주의 초석 된 4·19정신 계승할 것”

(사)4·19정신계승연맹 제65주년 추모기념행사 개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4·19정신 계승’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사)4·19정신계승연맹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 남구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2025년 4·19 추모기념행사’가 열렸다.

광주·전남·전북 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용호 4·19정신계승연맹 이사장, 전민수 광주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묵념, 기념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부

을 바친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사에 나선 전민수 광주연합회장은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여명을 밝힌 역사적인 시민혁명이었다”며 “1960년 4월19일, 불의와 억압에 맞서 정의와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위대한 발 걸음이었다. 그날의 정신은 6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강렬하게 살아 숨 쉬며, 자유민주주의의 든든한 초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19정신의 바탕 위에서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초석이 되겠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와 정의, 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반발해 일어난 4·19혁명은 시민의 항거로 독재정권을 물리친 민주항쟁으로 광주지역에서는 광주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시위를 주도했다.

특히 국민이 직접 나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민주항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호남대-광주대 “글로벌대학, ‘연합 모델’로 도전”

호남대 박상철·광주대 김동진 총장 ‘연합대학 선포식’

“AI·디지털 인재 육성…광주를 창조도시 허브로 조성”

교육부의 ‘2025년 글로벌대학30’ 공모에 호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가 연합 모델로 도전한다.

20일 호남대와 광주대에 따르면 양 대학의 연합모델 추진은 그동안 ‘글로벌대학 연합형’의 한계로 지적돼온 형식적인 연합을 뛰어넘어 ‘임시 모집의 동시 추진’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합대학 모델을 도출하고, 강력한 의사결정추진체를 가동해 지역 대학이 지역 상생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자·산·학 모델을 완성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 대학은 지난 18일 오후 호남대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대학’ 추진을 위한 ‘연합대학 선포식’을 갖고 ‘호남대-광주대’ 연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박상철 호남대 총장과

김동진 광주대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의 기획처장 및 사업단장, 광주시 김기숙 교육청년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호남대 박상철 총장은 “양 대학이 보유한 AI 및 디지털 기술 역량을 활용해 노동시장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특화모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대 김동진 총장은 “양 대학의 연합은 광주 청년들의 정주 기반을 확장하고, 서비스 산업 중심도시로서의 광주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총장은 문화도시 광주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창조문화 허브도시로서 광주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공동의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연합대학은 광주형 일자리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



박상철 호남대 총장(왼쪽)과 김동진 광주대 총장.

회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청년 고용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호남대와 광주대는 교육부의 ‘2025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연합형 유형에 가산점을 완료하고, ‘연합대학’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사람과도시

크고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믿을 주고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빗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공법, 우수분리장치 외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681등급 보도를 방호 울타리(설치 의무화) 기준공사가 필요 없어 공사비 절감 보행자를 방호울타리 경유(기준안락) 보도폭 확보 용이

빗물저류조 침투

- 블록형 결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 공극률 95% 이상
- RoHS 기준, 토양오염원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강제 롤러 가드레일

개방형 가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HANGUL (주)한길산업

www.hngroad.co.kr

본 사 1(광진)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 무 소 2(광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단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LS)로 172 한림유연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